하늘 구름과 임마누엘

(출40:1~38)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구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 구름과 임마누엘'
제목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마누엘'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해 속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임마누엘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이야기,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구름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하늘과 땅의 경계선인 구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는 도저히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의 핵심메시지를 바로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실존이 임마누엘의 상태일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생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맡은 구역이 달동네였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폐암말기로 오늘 내일 하고 계셨습니다. 환자심방을 갔었고 한 달쯤 지났는데 계속해서 찾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계획된 목회일정을 뒤로 미루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구역장님이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병상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과정이 다 끝났는데 할아버지께서 고통 중에 찬송을 불러

달라고 하셔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누워 계신 할아버지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면서 손을 허공에 대고 막 휘젓습니다. 제가 찬송을 멈추고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라고 했더니 '찬송을 부르는 목사님이 앉으신 방바닥 밑으로 자꾸 구름이 지나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름을 타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하십니다. 구름이 제 옆으로 해서 자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이 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혼이 죽기 전에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아들였지만 확증이 없었는데 구름위에 떠있다고 하니 소름이 끼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할아버지 손을 꽉 붙잡으면서 '할아버지, 됐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절박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름이 밑으로 지나간다고 하니 된 것 아닙니까? 구름이 뭡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땅을 떠난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고 하늘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니 그리로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평생 도박만하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막 살았는데 이런 놈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놈도 하나님이 자식으로 삼아준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말'이라고 하고 세례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구름위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인데 이 땅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후에 제가 성경에서 구름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구름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문에 성막이 봉헌되는데 임마누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듬해 1월 1일이니 출애굽한지 일년 만에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위에 충만하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성된 임마누엘의 예표입니다. 선민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성막위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여기에 구름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은 구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구름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관계를 갖는데 마음이 갖는 관계가 있고 몸이 갖는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구름 아래에 있는 몸은 구름을 따라가는 모습이 임마누엘의 완성조건입니다. 먼저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서 구름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름얘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얘기가 돼서 예수님께서도 막13: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임마누엘과 관계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하고, 본문에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구름을 따라갔다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고 몸은 구름 아래에서 구름을 따라가고 이게 임마누엘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본문에서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하는데 이 점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영광'은 일등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영광스럽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TV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김연아가 관심의 일등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시상식이 전 세계로 방송되는데 모든 피겨관계자들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등을 합니다. 관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할 때의 '여호와의 영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혼자만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서의 얘기로 250만 명의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다 보는데 옆에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먹고 살아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모든 관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일등 하시는데,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바로 250만 명의 마음이 구름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을 빼앗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 산에서 산 아래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변화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음에 가득 차버린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루고 싶은 소원도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닌 이게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타고 성막 가까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구름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려면 우리들이 구름을 올라타야 합니다. 단 우리들이 올라탈 수 있도록 성막 가까이 하늘자체가 내려오신 것이

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비행기 탔다가 내리듯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서 함께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성막이 뭡니까? 번제단이 있는 성막은 번제단에서 이 땅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우리 마음상태가 죽고 마음에서 땅이 죽어버리므로 올라타는 겁니다. 번제단이 있는 성막은 구름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구름을 올라탈 수 있는 탑승플랫폼으로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도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생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모습은 임마누엘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므로 제자들이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측근이 되면서 핑크빛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의 미래가 이렇게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러한 장밋빛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비전과 꿈이 다 깨져버리고 실망에 빠져있을 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사십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다 만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냥을 하시고 포획을 하셔서 마음을 다 당신에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십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행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구름이 하늘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공생애 때와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면 공생애 때는 마음이 이 땅에서 평면상의 미래에 가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룰 미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마음이 묶여서 예수님이 구름위로 올라가시니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수님 따라서 같이 묶여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자꾸 오순절 성령강림이 이 땅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름 위로 예수님 따라 올라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주어지면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시는데, 예수님께 묶여 올라갔으니 예수님의 자리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이 사람들에게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위에 계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현실적인 대상으로 마음에 느껴지면서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도 없고 잃을까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생긴 것은 몸이 구름아래 있으면서 구름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함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마음이 이 땅에서 다 접어두고 다 끝낸 죽은 상태에서 구름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마음은 구름위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몸은 구름 아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일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꼭대기로 올라가니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마음을 주어서 같이 구름위로 올라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일이 금송아지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내 죽음으로 나의 죽음인 것이지요. 그러면 십자가에 주님과 내가 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내 마음도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마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에게 마음을 주어서 시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땅에서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땅에 머물러 있으니 금송아지를 숭배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예수님 따라서 구름위로 올라가지 않으니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올려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구름 따라 내 몸이 움직여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온전한 모습이 되려면 반드시 구름이 함께 생각이 돼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고 아직도 이 땅으로 기뻐하려 하고 이 땅 때문에 불만스러워하고 있으면 지금 구름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상태가 돼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은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갔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지시하실 것이니 따라 가면 됩니다. 골3: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가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이 없어진 채로 하늘에 올라간 존재입니까? 몸은 여전히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두 경우와 비교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독일 유학 간 남편, 중동 벌이 간 남편’의 두 가지 경우로 임마누엘을 분명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한 괴팅겐대학도시의 비자 법을 알아보니 제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서 입국허가를 받아서 집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집사람은 그것을 들고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 가면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자치제가 잘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허락을 하면 영사관에서는 그냥 비자를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울어요. 지금 이 상태는 아이도 없었고 지켜야 될 집도 없었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이 여인에게 소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독

일에 가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안 된다고 하니 웁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선 가야됩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집을 얻어놓고 그리고 독일이 깨끗하고 참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직 남편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은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1990년이니 지금하고 또 다르지요. 이 경우와 중동으로 벌이를 간 남편의 경우를 봅니다. 집도 한국에 있고 돌봐야 될 자식도 한국에 있습니다. 아내의 삶의 전체의 터전이 다 한국에 있고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동에 가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생각도 소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남편은 거기서 돈을 잘 벌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자체를 비유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내가 하고 싶고 나의 기존의 삶이 다 있고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능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로 착각하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독일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줘도 집사람이 한국 땅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돈이 없어도 남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벌이 남편은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지금 생활 속에서 매달 들어가는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건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에서 임마누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사냥하러 오신 것이지요. 그 상태자체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구름 위로 우리 마음을 보내는 것이 임마누엘의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구름 위로 마음을 보내면 구름 아래에 있는 이 몸은 구름이 가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구름 위로 올려 보내서 하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올라타신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주관심사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심사는 번제단이 있는 성막이 탑승플랫폼인데 십자가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지금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드려서 거기서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함께 하는 것이고 진짜 임마누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긴 시간 장고 끝에 나오는 결론이 아닌 구름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고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건 부수적인 것이에요.

‘하늘 구름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본문에서처럼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오직 내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십자가 말씀을 전

하고 들으면서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이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성령충만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앞선 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니 내가 무서울 게 무엇이고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충만인데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간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올라간 자의 몸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방언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지만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과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구름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에서 날마다 하나님 계신 구름위로 우리 마음이 탑승하므로 구름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며 구름아래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임으로 온전한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